

기 조 논 문

■ 황규명(D.Min., 총신대학교)

• 체면문화와 기독교상담



체면문화와 기독교상담

황 규 명 교수
(D.Min., 총신대학교)

국문초록

상담은 문화라는 배경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은 상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란 사람이 창조했거나 빚어낸 환경의 일부이다. 문화는 의도적으로 가르치거나 노력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에서 흡수되었고, 평생 동안 우연히 배우게 됨으로써 강화되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담자는 초문화적(intercultural)이어야 한다.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내담자의 상담 받고자하는 문제들도 문화적 요인과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 있어서 주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한국인의 경우, 체면문화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인에게 체면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자기 완성적 욕구보다는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사회적 성취욕구가 강한데서 체면의식이 발달되었다고 해석된다. 체면문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첫째, 진실성의 결여이다. 예의를 갖추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과시를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함이다. 둘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자기를 숭배하는 이상숭배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함이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체면의식, 체면문화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죄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직면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찾게 하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마음으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면을 할 때에 체면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한다.

중심단어 : 문화, 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 자기숭배

I. 여는 글

상담은 문화라는 배경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은 상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에 대한 정의로는 Herskovits의 정의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란 사람이 창조했거나 빚어낸 환경의 일부이다(Culture is that part of the environment that is created or shaped by human beings).”¹⁾ 문화는 의도적으로 가르치거나 노력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에서 흡수되었고, 평생 동안 우연히 배우게 됨으로써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이 숨쉬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그것을 빼앗겼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²⁾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담자는 초문화적(intercultural)이어야 한다. 초문화적인 사람이란 문화와 상관이 없는(culture-free) 사람이 아니라, 문화에 대하여 민감한(culturally aware) 사람이다.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장자리에서 다른 문화로 건너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³⁾ 상담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에 이 능력은 필수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담의 이론과 방법은 주로 20세기 유럽과 미국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문화의 가치관은 개인주의, 인류평등주의, 사회적 역동성, 개인변화의 권장, 등이다.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자발적 판단과 결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미국의 상담경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내담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함으로써 소수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이 미국사회의 주류가 아닌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상담학계에서는 초문화상담(cross-cultural counseling)이 발달하게 되었다.⁴⁾ 한국인 상담자가 내국인을 상담할 경우, 미국에서와 같은 심한 문화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사회계층, 연령, 기타 배경의 차이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서구적인 상담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문화의 특성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상담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성 중

의 하나인 체면문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체면'이라는 말을 거의 입버릇처럼 사용한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 좀 세워야겠다," "체면 좀 차려라" 등등 '체면'을 포함한 어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⁵⁾ 체면이란 말 이외에도 "낮 뜨겁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얼굴에 먹칠한다," "뿔 면목이 없다"는 등의 얼굴, 낮, 면목, 모양새 등과 같은 용어들도 체면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며,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체면이라는 말에 대한 비중을 더한다. 또한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친다," "가문 덕에 대접받는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냉수 먹고 이빨 수신다," "큰 무당 있으면 작은 무당이 춤 안 춘다," 등 체면과 관련된 속담들도 많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체면은 위세의 형태로 잘 나타나며 지위가 높은 사람은 물론 낮은 사람도 체면을 지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⁶⁾

체면이 한국인의 생활속에서 이처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생활속에서 체면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체면이 한국만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 특유의 현상은 결코 아니며,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체면욕구는 서구인에 비하면 좀 별난 데가 있다. 생활전반에 걸쳐서 체면에 신경을 쓴다. 의식주의 선택, 승용차 등의 구입, 친구의 선택, 진학 및 취업, 선물의 선택, 명절맞이 인사, 결혼식, 등 남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체면과 관련짓는다. 체면이 한국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에 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체면에 몰렸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노력한다."⁷⁾

한국인에게 이처럼 소중한 체면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기독교상담학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고찰해보겠다.

II. 펴는 글

1. 체면의 개념

체면은 몸을 뜻하는 ‘체’와 얼굴을 뜻하는 ‘면’의 합성어로,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이라는 의미이다. 체면의 이러한 정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려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 체면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자기 완성적 욕구보다는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사회적 성취욕구가 강한데서 체면의식이 발달되었다고 해석된다.⁸⁾

체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 “남을 대하기에 번듯한 면목, 낫, 남불쌍”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체면이 섰다는 것은 남을 대하기가 더욱 떳떳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면을 잃었다는 것은 남을 대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체면을 지켜야만 남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체면의식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체면의 유지나 체면상실이 가져오는 결과만을 강조할 뿐 체면의 본질 자체를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⁹⁾

체면의 본질적 특성은 첫째로, 체면의 사회적 속성이다. 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만 존재한다는 말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자 목욕하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점잔을 빼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도 없을 때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옷을 갈아입는 일상적인 행동도 체면이 이 같은 사회적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¹⁰⁾ 이러한 체면은 사회적 얼굴(social face), 혹은 사회적 자존심(social esteem)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지위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체면이라는 것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대우와 관련된 자존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자신, 또는 어떤 사실

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방의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¹⁾ 둘째로, 체면은 이미지라는 특성이 있다. 이미지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체와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미지 관리에 성공한 경우에는 좋은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흘을 굶어도 남 앞에서는 이빨을 쏘신다.”라는 한국인의 체면치레 행위는 체면이 실속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셋째, 체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구성된 이미지이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기 혼자만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면을 세워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체면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가, 또는 존중할 만한가를 반영해주는 것이다. “체면을 지키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남을 대하기가 떳떳하고, 체면을 잃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미지를 잃게 되어 남을 대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¹²⁾ 남의 승인에 대하여 이규태는, “체면 때문에 굶주려도 참고, 배불러도 먹어야 하고 추위도 옷을 못 입고, 더위도 옷을 못 벗는다. 또 그 때문에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못한다.”고 풀이했다.¹³⁾

넷째로, 체면은 공적인 자기 이미지이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사적인 이미지와 공적인 이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적인 이미지란 남과 무관하게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며, “누가 뭐래도 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자존심 또는 자긍심을 들 수 있다. 공적인 자기 이미지는 남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내세우는 자기의 모습을 말하며, “당신들이 알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나 스스로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체면이 공적인 자기 이미지라는 말은 체면이 남들에 의해 주지되고 수용되어야 할 자기 이미지라는 것이다.¹⁴⁾

체면 때문에 자기자랑을 금하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행동을 삼가고, 눈치의 문화가 발달되어 남이 자신을 눈치껏 알아주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활속에는 우쭐거리는 행동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이 있다. 이

리한 만족감은 자신의 우월성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며, 남이 갖기 어려운 것, 부러워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쭐거리는 것으로 이어진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면은 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실체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고, 남의 인정을 받고자 공적으로 내세워지는 것이다.

2. 체면의 구성요소

체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회 구성원들이 내세우는 바람직한 이미지는 사회전체영역에 걸쳐 있게 마련이다.¹⁶⁾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인 반면, 자기 지향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덜 중요하다.¹⁷⁾ 따라서 체면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성 중에 특징적인 체면은 한국문화가 유교적인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서열과 위계질서를 강조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걸 맞는 행동과 예절의식을 중시하는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한국인의 체면은 크게 처신, 인품, 품위, 역량, 성숙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처신과 인품은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품위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역량과 성숙은 그 사람의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1) 처신

처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가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일컫는 말로서 체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흔히 몸가짐이 깔끔하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칠칠치 못하다”고 이야기 하는 데, 이는 처신을 잘 하지 못하여 체신

을 잃은 것이며, 남 앞에서 함부로 나서기를 꺼리고 '짐잔을 빼려' 하는 것이나 남의 눈치를 봐 가면서 '남 하듯이' 행동하려는 것들은 모두 처신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가짐이 깔끔하고 행동거지가 사회의 규범에 일치해야 한다. 몸가짐이 깔끔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동거지가 사회적 규범에 맞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에 맞게, 주어진 상황속에서 자신의 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2) 인품

인품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일컫는 말이다. 인품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특히 "○○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품을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품의 소유자로 비치기를 바라고 있다. 인품이 탁월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감이 있어야 하고 언행이 진실해야 하며 경우가 발라야 한다. 따라서 남 앞에서 큰소리만 쳐 놓고 일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남에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는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치고 말 것이고, 남 앞에서 유식한 체 하다가 들통이 났거나, 쓸데없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니면 언행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또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거나 할 때에는 경우가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인품이 바르지 못하게 비치게 된다.

3) 품위

'품위가 있다'는 말을 사용할 때 걸모습이나 행위 또는 사는 모습이 사회

적으로 위치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여유 또는 외적인 풍요를 두고 이야기 한다. 이처럼 품위는 그 사람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외형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지 못하지만 한국사회는 외형과 실질을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품위를 매우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질이 뛰어난 사람이 외형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형을 잘 갖춘 사람이 실속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적인 여유를 과시해야만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흔히 체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 또는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함을 볼 때 품위가 체면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여유를 보여야 하고, 외양을 우아하게 꾸며야 한다. 그리고 엉터리 졸업장이라도 따서 학벌을 높이려 하고, 형편에 과분한 집과 차를 장만하는 등을 통해 가세가 번창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4) 역량

역량이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자질보다는 사회적으로 입증된 능력, 즉 사회적인 인정이나 성공을 통해 입증된 능력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역량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않는다.” 또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다.”는 등의 상대적인 조건들이 주요 평가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역량은 그 사람의 실제적 능력보다는 그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에 더 중점을 둔다. 따라서 “남의 인정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등의 외형적 조건들이 역량을 평가할 주요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앞에 엉터리 직함이라도 내세워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역량을 과시하려고 한다.

5) 성숙

성숙이란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

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숙하다는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질과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남의 존중과 관심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질은 자신에게 맡겨진 바를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를 갖춘다는 것이고 자율성을 갖춘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결정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주성과 자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와 위치를 존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남의 존중을 확보하는 것이며, 남의 관심을 확보한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은 다른 체면요소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처신과 인품 그리고 품위와 역량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격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중시하는 체면이라면, 성숙은 상호작용 중에 있는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추고 싶어 하는 체면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체면 유지 욕구란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 즉 주어진 사회적 부문에서 자신의 모습이 바람직하게 비치기를 바라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체면 유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체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체면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다소 모호하지만 타인의 평가가 체면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체면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의 체면요소를 더 중시하기도 하며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주어진 체면요소에 대한 체면욕구도 달라지기도 한다.¹⁹⁾ 내세울 체면 꺼리가 별로 없는 사람, 즉 사회적이거나 개인적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체면 차릴 때가 아니다.” 혹은 “체면 차릴 입장이 되지 못 한다.”는 표현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체면에는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동양식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양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체면을 낮

춘다.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을 사회로부터 요구받는다. 이러한 체면에는 스스로 차리는 체면과 남이 세워주는 체면이 있다. 보통 “체면 차리지 말고 많이 먹어라.”라는 말은 스스로 차리는 체면을 말하며, “내 체면 좀 세워주라.”는 말속에는 상대가 본인을 높게 대우해줌으로써 제 3자에게 높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즉, 체면꺼리가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형태를 말한다.²⁰⁾ 한국인의 체면의식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별난 점이 있다고들 말하는데,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3. 한국 사회에 나타난 체면의식의 특징

1) 규범적 체면과 과시적 체면

한국인이 사회적으로 획득하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이미지 즉, 체면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규범적이라는 인상’과 ‘잘난 사람이라는 인상’이다. 규범적 이미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처신 또는 체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운 여름날에도 넥타이 차림의 정장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거나, 배가 고프에도 음식을 사양하는 모습 등에서 체신을 지키려고 규범적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규범적 인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때 체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느낀다.²¹⁾ 또한 규범적 체면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의례성’을 들 수 있다. 의례성은 표면화된 언행의 의도나 목적이 모호, 또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상대방과 작위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점심식사 시간쯤 마주치는 친구나 동료에게 물어보는 “밥 먹었니?”라는 질문은 실제로 식사를 하였는지 묻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지나쳤을 경우에 상대를 무시하는 인상을 주어서 체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의 체면을 배려하는 동기에서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언행은 사회문화적 규범의 기대를 가지고 행해진다.²²⁾

한편, ‘잘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남에게 자신의 뛰어난 점을 보여주고

부족한 점을 감추어야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시적 체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과시적 체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돋보인다.'는 이미지를 남에게 보여 주거나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따라서 인품과 품위 그리고 역량과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시적 체면은 규범적 체면 못지않게 중요하고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 '팔불출' 주부가 떠들어대는 남편자랑, 자식자랑, 술자리에서 자주 듣는 무용담, 등과 같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정치적 집단의 명분 싸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²³⁾ 특히 수직적인 대인관계가 중시되는 관계주의 문화권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권력동기가 중요하다. 한국인은 신분이나 가문이 좋을수록 남들과 차별되는 귀한 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으며,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물건과 명품을 구입하며, 자신이 남과 다르기에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신분-가문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이것을 사회적으로 과시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과시적인 소비는 개인의 자존심보다 '신분-가문의식'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수준과 재산이 많은 편이지만, 체면민 감성과 '신분-가문의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나 경제수준이 낮더라도 과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과시라는 방법으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사람일수록 과소비, 체면소비, 모방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²⁴⁾

2) 체면유지를 위한 방편-공손행위와 눈치작전

한국사회가 중요시 하는 체면에는 규범적 체면과 과시적 체면이 있으며 이러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손의 언어를 표현하는 공손전략을 사용한다. 상대의 규범적 체면을 세워 주는 공손전략은 자신이 상대를 규범적으로 대할 때 지켜지는 것이고 주로 의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흔히 쓰는 "죄송하지만....."이라는 표현이나 상대방이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해 주려 할 때 관례적으로 말하는 "괜찮습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규범적 체면과 관련된 공손전략이다.

한편 과시적 체면을 세워주는 공손전략은 상대방이 과시하고자 하는 바를

인정해주는 언어표현으로 나타난다. 한국인은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과시적 체면을 세워주는데 익숙해져 있다. 상대방을 과도하게 칭찬해 주거나 치켜세우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의 과시적 체면을 세워 주는 공손전략이다.²⁵⁾

또 하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편으로 '눈치'를 들 수 있다. 눈치의 체면보호기능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더 두드러진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주머니가 텅 빈 사실도 모른 채 음식값을 내려다 품위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 상대가 '눈치껏' 행동한다면 서로가 체면을 잃지 않고도 일을 잘 처리 할 수 있다. 즉 한쪽에서 "나는 돈이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쪽에서 그것을 눈치 채고 미리 돈을 내면 체면을 잃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눈치는 상대방의 체면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체면을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한다.²⁶⁾

공손전략과 눈치작전을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통해 결국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는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게 해주고 인간관계를 자기가 의도 하는 대로 발전시켜 주며,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성취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체면의식에 나타난 문제점

체면의 법칙은 자신의 도덕성과 능력을 완성시키려는 욕구와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사회적 성취욕구로 인해 발달한다. 따라서 체면의 발달은 인격발달과 사회성발달로 이어진다. 따라서 체면은 일종의 자기반성과 절제의 법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이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만일 모든 인간들이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사회는 아노미상태에 빠지게 된다. 타인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행동은 서로 존중해준다는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체면의식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체면주의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극도로 의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

한 본질은 허위의식이다. 남에게 자신의 실제의 모습보다 과대포장하거나 심지어 위장하여 잘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역시 허례를 위해서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 혹은 심지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그러한 체면주의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극도로 팽배해 있다.²⁷⁾ 체면을 찾는 것이 지나칠 때가 문제라는 것이다. 본질 보다 앞서 나가 고자 할 때, 더 커지려 할 때가 문제인 것이다. 신념보다 체면이 강하게 작용하며 때로는 모습보다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식탁을 차리거나 제사를 지낼 때, 예의형식이 있는 것처럼 체면의 법칙에도 형식이 있다. 형식 자체 보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체면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었다보면 체면의 의미가 왜곡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체면법칙은 때로 사회적 병리현상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신의 체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이려는 행동은 흔히 최고 및 일류 지향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²⁸⁾ 분에 넘치게 과시욕구가 표출되어 사회적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과소비를 부추김으로써 가정경제의 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면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도리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또는 탁월한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을 때 세워진다. 처음에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형이 중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외형적 측면보다 내면의 모습이 대인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그와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외형적인 체면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체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지나치게 체면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실제 자존심이 낮고,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열등감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이로 인해 과소비를 하는 것이다.²⁹⁾

5.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본 체면의식

1) 체면의식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에는 과연 체면에 관한 말씀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체면'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관점에서 유사한 모습들이 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치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마 23:5-7).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여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더 사랑하였다. '경문'은 원래 호신패, 부적,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도의 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자기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차고 다니게 되었다. 옷술을 크게 하는 것이나 상석을 좋아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영광을 구함이다.³⁰⁾ 과도한 체면의식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체면문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첫째, 진실성의 결여이다. 예의를 갖추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과시를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함이다. 둘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청중의 찬사를 생각하며 일한다. 순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광인, 천재, 혹은 최고의 이기주의자일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의식하는 청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청중이 누구인가?"이다. 하나님의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온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보다도 단 한분의 청중 앞에서 살아온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는 것이며, 다른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최후의 청중이며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³¹⁾

인간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유명해지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주요한 가치판단 기준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남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열망은 자아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남의 눈에 띄는 것, 칭찬 듣는 것, 남이 좋아해주는 것, 남이 받아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도 내게 주목해주지 않고, 나의 일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불안정한 마음이 된다. 그럴수록 인기와 칭찬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지만, 슬프게도 이 갈망에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 인간은 칭찬을 들을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칭찬을 바라게 되며, 타인으로부터 용납 받는 것에 대한 갈망은 밀 빠진 독과 같다. 이와 같은 심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충분하고 완전한 용납이어서 남의 눈에 띄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강박의식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준다.³²⁾

체면유지를 위하여 과도한 소비를 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무리를 한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이며,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현대인들은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자존감에 대한 책들 중의 대부분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성취하여 이룬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존하게 된다.³³⁾ 한국에서는 체면문화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이던 서양이던 인간의 문제는 근본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마음'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는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는가?"의 문제이며, "누가, 혹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가?"의 문제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심'과 관계가 있다. 현대인들은 다원주의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에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듯이 나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문화에서 가장 큰 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인간이 이해하는 바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당연히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즉,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라고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갈 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³⁴⁾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2) 체면의식에 대한 상담

내담자가 지나친 체면의식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니면 과소비를 하여 경제적 곤경에 빠졌다면, 상담자는 그러한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체면의식이 무엇인지, 성경적 관점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직면해야 한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지나친 체면의식이 걸림돌이 된다면, 상담자는 그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약간의 공손전략이나 눈치작전을 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체면의식에 대한 직면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직면 자체가 내담자에게는 체면손상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직면할 때에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직면을 하는데 있어 상담자는 무례하게 행하거나 정죄하는 자세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권면하는 사람'과 '그의 이웃'이라는 두 가지 계급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 권면을 받게 될 수 있고, 그 이웃이 반대로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주시는 권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역시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람 속에 거하는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인간은 모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역시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인이 죄인을 돕는 것이다.³⁵⁾

상담자는 사랑으로 직면을 해야 하는데, 사랑의 직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깨닫는 것에 근거한다. 그리고 상담자의 목표는 내담자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누구인가를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직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와 그리스도'이다. 권계는 내담자에게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얻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직면은 율법주의를 더욱 강화시키지 않는다. 직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간 누군가에게 다시 그분의 강권하시며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로써 내담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유로움을 알게 된다.³⁶⁾ 체면의식의 특징인 가면과 허식은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참 모습을 보면 비난과 조롱을 할지 모르나 주님

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과도한 체면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Ⅲ. 닫는 글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내담자의 상담 받고자하는 문제들도 문화적 요인과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 있어서 주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한국인의 경우, 체면문화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민족들도 체면에 관심이 있겠지만, 한국인의 체면의식은 유별난 점이 있음을 이미 고찰해보았다.

어느 나라 사람의 체면의식이든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관련이 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한 체면이라면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이기심, 교만, 자기숭배,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찬사와 인정을 더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충족되지 못한 자기과시, 자기만족, 등으로 인한 우울한 마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만 열중한다면 일시적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문제의 근본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도리어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체면의식, 체면문화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죄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직면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찾게 하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마음으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면을 할 때에 체면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 같이 체면문화에 익숙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관계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문제도 역시 대인관계에 관한 성경적 방법을 적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라는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는 등의 말씀들이 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실천한다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여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상담에서는 체면문화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상담과정에서 고려할 뿐 아니라 상담자나 내담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체면의식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마태복음」. 서울: 기독지혜사. 1990.
- 김용운.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2.
- 김효창. 「한국인 설득의 심리학」. 경기: 바람출판사. 2005.
- 백태열. “한국인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emerge」. 2001.
- 임태섭 편저.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1995.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3권)」. 서울: 신원문화사. 1983.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 최상진. 유승엽. “속담분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리 표상.” 국립국어연구원. 「새국어 생활」. 제4권(1994. 2).
-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사회심리학회지」. 제6권(1992. 2).
- Augusburger, David W.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 Draguns, Juris G. “Humanly Universal and Culturally Distinctive.” in *Counseling*

across Cultures, Paul B. Pedersen, Juris G. Draguns, Walter J. Lonner, Joseph E. Trimble, ed. Thousand Oaks: Sage. 1996.

Guinness, Os. *The Call*. 홍병룡 역. 「소명」서울: IVP. 2000.

Herskovits, Melville J. *Man and His Works*. New York: Knopf. 1948.

Nouwen, Henri J. M. *The Selfless Way of Christ*. IVP 편집부 역.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서울: IVP. 2003.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2.

Welch, Edward.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7.

[후주]

- 1) Melville J. Herskovits, *Man and His Works* (New York: Knopf, 1948), 17.
- 2) Juris G. Draguns, "Humanly Universal and Culturally Distinctive," in *Counseling across Cultures*, Paul B. Pedersen, Juris G. Draguns, Walter J. Lonner, Joseph E. Trimble, ed (Thousand Oaks: Sage, 1996), 2-3.
- 3) David W. Augusburger,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13.
- 4) Draguns, 4-5.
- 5) 임태섭 편저,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1995), 103.
- 6) 최상진 · 유승엽, "속담분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리 표상," 국립국어연구원, 「새국어생활」 제4권(1994, 2): 72-3.
- 7) 임태섭 편, 103.
- 8)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174.
- 9) 임태섭 편, 104.
- 10) 임태섭 편, 134.
- 11)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사회심리학회지」 제6권(1992, 2): 137-40.
- 12) 임태섭 편, 104-5.
- 13)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3권)」 (서울: 신원문화사, 1983) 291.
- 14) 임태섭 편, 105.
- 15) 최상진, 268.

- 16) 임태섭 편, 106.
- 17) 김효창, 「한국인 설득의 심리학」 (경기: 바람출판사, 2005), 66.
- 18) 김용운,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면지향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2), 15.
- 19) 임태섭 편, 106-17.
- 20) 김효창, 65-6.
- 21) 임태섭 편, 136.
- 22) 김용운, 9.
- 23) 임태섭 편, 137.
- 24) 김효창, 61-62.
- 25) 임태섭 편, 137-9.
- 26) 임태섭 편, 160-162.
- 27) 백태열, “한국인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emerge』(2001, 2) 2-3.
- 28) 김용운, 20.
- 29) 김효창, 78-84.
- 30)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마태복음」 (서울: 기독지혜사, 1990), 769-70.
- 31) Os Guinness, *The Call*, 홍병룡 역, 「소명」 (서울: IVP, 2000), 118-19.
- 32) Henri J. M. Nouwen, *The Selfless Way of Christ*, IVP 편집부 역,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서울: IVP, 2003), 44-6.
- 33) Edward Welch,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7), 74.
- 34) Welch, 78-79.
- 35)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2), 202-204.
- 36) Tripp. 207-9.

【 Abstract 】

Chemyun Culture and Christian Counseling

Kyu-Myeong Whang
(D.Min., Chongshin University)

Culture is “man-made part of the environment” and is like the air we breathe. Thus, in counseling, we can not ignore the culture by which counselee or counselor is influenced. One of the Korean culture we should be aware is the ‘chemyun’ culture.

‘Chemyun’ means honor, dignity or reputation. If you lose face, you can say you have lost your chemyun .In Korean culture, you must have and show dignity because no one wants to lose face or be ashamed, and everyone desires self-respect. The emphasis is more on other people's opinion about you rather than virtue or value in yourself. Because of chemyun, sometimes you have to refrain from eating when you are starving, and you have to eat even when your stomach is full. Sometimes, you cannot put on more clothes even when you are freezing, and you cannot take off your clothes when you are sweating. Besides, you cannot cry or laugh in response to those things happening.

In chemyun culture, it is a virtue to refrain from boasting about oneself, but people, deep inside, want to be admired and envied. So, they try to have what others recognize and to do what others approve. Such behaviors reflect their subconscious or even conscious desire to be recognized as superior by others. For example, some people spend so much money that they get into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they are caught up in what others might think of them. That is the fear of man. Fear of man is inversely related to the fear of God. As the fear of God is eroded, the fear of man is intensified in the heart of the human being.

A question must be raised, “What is your biggest concern, what people think about you, or what God thinks about you?” If you are pursuing chemyun more than just trying to be courteous, you probably are seeking approval of man and your own glory. Behind the chemyun culture, there can be a self-worship.

Kye words: culture, chemyun, fear of man, glory of God, self-worship